

2019 정책Brief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 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 -

*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수탁연구로 수행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성공요인 분석연구('19.1)"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연구진
황영모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나정호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CONTENTS

1.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02
2. 농촌지역 문제와 사회적 경제	02
3.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과정	03
4.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	06
5.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에의 시사점	11

1.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¹⁾은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뿐 아니라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판로확보가 어려운 영세소농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반찬배달 및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됨(농림축산식품부, 2017)²⁾
-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은 ‘비즈니스’ 사업조직과 ‘공동체’ 활동조직의 성격을 갖지만,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대체로 취약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활동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우호적인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조직에 국한시키지 않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이 필요함
- 개별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영역(미시적 수준)을 기초로, 조직과 조직이 연계·연대하는 공동의 영역(중간적 수준)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여건(지역적 수준)으로 구체화될 때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사례로 완주군에 주목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요인’을 해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완주군은 도농복합 지역이지만, ‘로컬푸드’ 방식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하고 농촌사회를 활성화시켜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로컬푸드’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농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지역임

2. 농촌지역 문제와 사회적 경제

- 농촌지역은 ‘농업불황과 금융위기, 유통자본의 시장점유 확대’ 등으로 지역외부의 시장실패에 꾸준히 영향을 받아 왔고, 그 결과 농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음
 - 농가는 전업적 대농가와 영세한 중소농가로 분화되었고, 특정 품목 중심의 주산지화는 상시적 가격변동 위험을 농촌지역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음

1)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2)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전체 귀농·귀촌 가구의 43.2%) 활동인력이 부족한 농업·농촌 현실에서 농촌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의 경쟁력 저하는 지역 외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외부 취업 지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농업 시장실패’는 외부시장 출하지향을, ‘지역고용 시장실패’는 지역외부 취업지향을, ‘삶의 질 시장실패’는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해 지역경제 침체에 영향을 줌
 - 인구에 비례하여 추진되는 정책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사회서비스가 투입되어, 삶의 질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은 생활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며, 공공영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³⁾
- 경제활동 조직의 이윤 창출 여력이 적어 시장에서 원활하게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복지재정의 부족 또는 정책인식의 부재로 정책(정부)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주류 시장경제의 가치사슬에 편승하지 못하고 개별 조직으로 분산되어 사업과 활동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황영모, 2013)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장에서 경쟁우위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소요비용을 절감하는 목표가 더욱 중요함
- 시장실패와 시장부재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을 조직하여 개별 조직을 연계해 나가는 전략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3.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추진과정

1) 농촌활력 정책의 추진

-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일자리 감소, 이농·이촌 증가, 소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완주군은 2008년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음⁴⁾
 - 약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농업·농촌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총 5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농정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 소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환경 보전, 주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로컬푸드 정책이 추진되었음

3) 마을조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정책사업 수행조직 또는 법인 인가체

4) 약속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희생, 농촌활력, 복지혁신’ 등으로 극복해 나가는 전략으로 소농·고령농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초기 로컬푸드 정책은 다품목·소량품목의 기획생산체계와 판로개척 중심의 직매장 사업형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음
- 로컬푸드 시스템이 안정화하면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민가공, 6차산업화, 학교급식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⁵⁾
- **전담부서(농촌활력과 로컬푸드팀)를 신설('19년 조직개편,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팀')하여 '로컬푸드·직매장·6차산업화·꾸러미'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먹거리정책과(푸드플랜·식품가공·식품산업), 사회적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함

2) 로컬푸드의 전면화

-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로컬푸드의 시작점은 '(영)완주로컬푸드 건강한 밥상'('10.5)이 담당해온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임
 - 조합원 73명, 직원 10명, 법인·작목반·개인 등 150농가가 참여한 공동체지원농업 모델로 약 300가구를 대상으로 회원제 소비자 맞춤형 꾸러미 배송사업을 추진함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 로컬푸드의 본격적 사업조직으로 '완주로컬푸드 농업회사법인'('12.6.)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14.1)으로 전환함
 - 생산자(1,121명)와 노동자(101명)이 참여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직매장(6개소), 농가레스토랑(4개소), 콩 종합가공공장(1개소), 기타(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⁶⁾
-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로컬푸드의 지역적 확장 계기는 공공(학교)급식으로 완주군 출연기관인 '(재)온고을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13.5)가 담당하고 있음
 - 냉장·냉동창고·전처리실·작업공간, 사무실·교육장·식당, 전처리시설, 냉동탑차 등을 갖추고, 350농가와 27명 인력이 정책·유통·물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의 보편화는 지역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담당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흡인숍 형태의 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2개소, 전국 최초)은 680농가(농가·마을공동체·다문화공동체·장애인단체 등)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⁷⁾
- **(거점농민가공센터)** 농산물의 가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생산자로 환원하기 위해 건립한 공공형 가공시설인 거점농민가공센터가 로컬푸드 상품화 확장을 담당함
 - 약 200여개(반찬류·습식류·건식류·제과제빵 등)의 가공식품 생산과 가공 및 창업 교육과정, 상품화 및 인허가를 지원하고 있음

5)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 건강한밥상('10.5), 고산('12.6)·구이('15.5)의 거점농민가공센터, (재)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13.5), 모약점('13.7)·효자점(2016.2)·둔산점('16.12)·혁신점('17.7)의 농가레스토랑&카페, 소이푸드 콩 종합가공센터('16.7) 등

6) 효자직매장('12.10), 모약직매장('13.7), 하가직매장('14.1), 둔산직매장('15.1), 삼천직매장('15.8), 혁신직매장('17.7) 등

7) 용진직매장('12.4), 고산·상관·소양·봉동의 농협직매장('13), 용진직매장 2호점('15.9) 등

- 콩 종합가공시설(세척실·분쇄실·가열실·포장실·보관실·제조라인 등)을 갖추고, 800농가(계약재배 200농가)가 참여, 협동조합 출자 (주)푸드스테이션이 운영을 맡고 있음

- (로컬푸드 정책 관련 조례 제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 관련 조례·규칙⁸⁾ 등의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자체 인증시스템을 도입('13년)해 완주로컬푸드의 생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3) 사회적경제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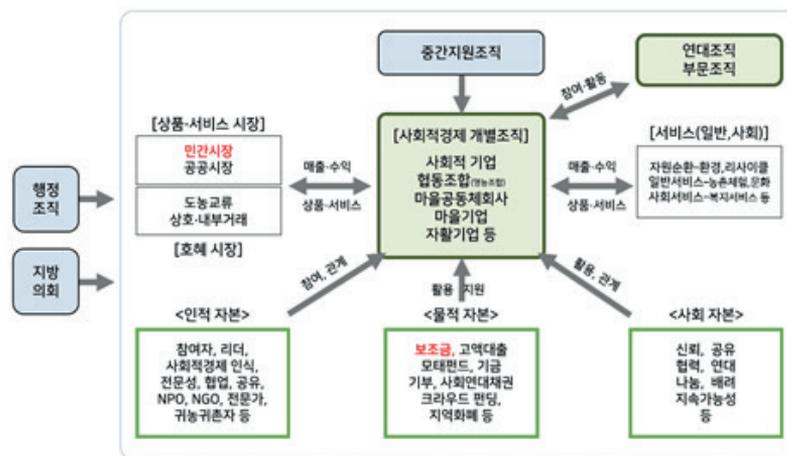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주체) 완주군에서 농촌활력을 위해 추진해온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성공 경험은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파워빌리지, 마을공동체회사, 두레농장,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 추진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사회적경제과)을 신설('19년)하여 행정지원체계 구축하고, 연대조직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유치해 고령농 소득증진, 장애아동 재활, 청년농 육성 등 문제 대응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봉면 평치마을 두레농장과 고산면 협업농장 등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통해 전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⁹⁾



자료 : 완주군(2018)

〈그림 1〉 완주군 사회적경제의 실행체계

8)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0.10),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12.5),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12.12),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13.3), 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13.4),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13.6)' 등

9) 2009년부터 노인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을단위 두레농장(10개소)을 운영해왔으며, 평치마을 두레농장은 발달장애 아동·가족이 고령농과 함께 농사짓고 어울리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로의 영역 확장)**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17년)’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한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음
 - 소셜굿즈(social goods) 플랜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자립과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임
 - 5년간 사회적경제 조직 500개와 일자리 5,000개 창출을 목표로 소셜굿즈 COOP 300개 지원, 공동체 협동조합 전환 자립화 지원 600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4.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

1) 활성화 구조와 요인

- 완주군은 사회적경제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위한 과제를 ‘개별조직, 네트워크, 지원체계’에 따라 실천해 가고 있음
- 첫째, 개별 조직의 미시적 수준에서 ‘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요인으로 ‘문제진단→조직설립→조직운영→사업실행→성과공유’의 경로를 가지고 있음
-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은 비즈니스 거점이 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사업장 중심 비즈니스’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활성화의 핵심요인¹⁰⁾
- 셋째, 사회적경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조직과 조직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중간적 수준’과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적 수준’에서 구축하고 있음¹¹⁾

2) 기본에 충실한 조직의 설립과 운영

- **(문제의 진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단계에서 우선 고려된 것은 ‘주민의 생활 상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였는가에 있음
 - 농촌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소득증대, 고용확대, 복지증진’을 직접적인 사업과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조직의 설립)** 문제진단 이후 ‘필요·요구의 조직화’ 단계로서 조직을 설립하였는데, 지역주민 구성원의 필요를 종합하고 조직화하는 사전과정을 충실히 거쳐 왔음
 - 조직 설립 이전에 사회적경제 사업조직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중간지원조직과 연대조직이 ‘전문 교육훈련 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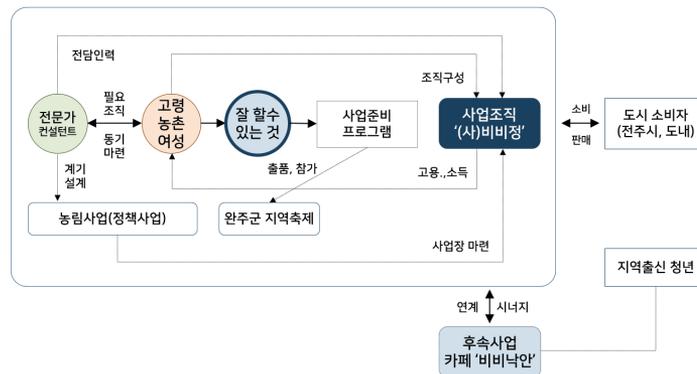
10)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레스토랑, 마을가공, 체험마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은 개별 조직을 연계하는 지역통합형 사업전략의 핵심이 되는 사업장(로컬푸드 직매장과 거점가공센터)

11) 중간적 수준에서 개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조직을 망라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특징적이며, 지역적 수준은 지자체 차원의 요인으로 ‘지원정책, 지원부서, 지원조례’ 등으로 구체화됨

- 조직형태는 대부분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초기자본의 대부분은 구성원의 '출자금·회비'로 조성하고 부족분은 '보조·용자'로 보충하였음
- **(조직의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 '민주적 조직운영'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여 구성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구성원 참여의 '내부 개방성'이 높고, 지역사회의 '외부 개방성'을 유지하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상근인력에 한계를 비상근 인력(구성원)의 역할로 보충하고 있음
- **(사업의 실행)** 비즈니스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정한 '물적기반'을 토대로 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 '판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으로 정책지원을 활용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경로가 '소비자 직판, 직매장 판매, 공공기관 판매' 등 다변화된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음
 -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으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전담인력'과 '자금확보' 등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성과의 공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활동 성과'는 참여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로의 간접 확산도 기울이고 있음
 - 많은 수의 조직이 '내부유보'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갖추는 단계에 있으며, 개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이익(판매, 일자리 등)을 얻고 있음
 - '문제해결' 조직으로 '일자리, 소득, 서비스' 등에 걸쳐 지역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개별조직 한계를 '네트워크 조직' 참여와 '정보공유 및 연대사업' 등으로 대응함

3) 사업장 중심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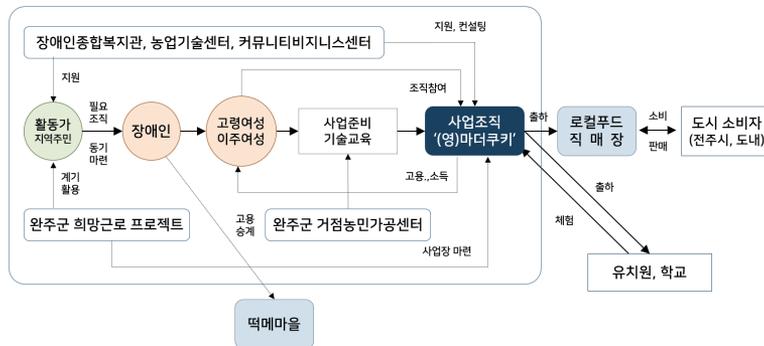
- **(농가 레스토랑 모델)** '농가 레스토랑'은 농촌마을 주민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음식'이라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적 거점임



〈그림 2〉 농촌마을 '농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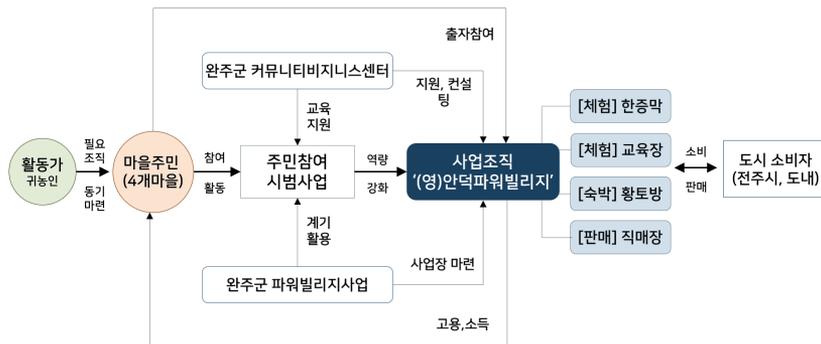
- '(사)비비정 마을'은 고령자 농촌여성이 텃밭에서 재배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을 올리는 농가 레스토랑 방식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사례임
- 농가 레스토랑에 사회적 가치를 입혀 도시 소비자 방문으로 성업 중이며, 마을 출신 청년들이 모여 후속 사업조직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 **(농촌가공 사업장 모델) '가공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적 비즈니스 영역임

- '(영)마더쿠키'는 농촌마을에서 고령 여성, 다문화 여성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과자·빵 등을 만들어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임
- 완주군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지원조직(장애인종합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컨설팅을 통해 사업조직을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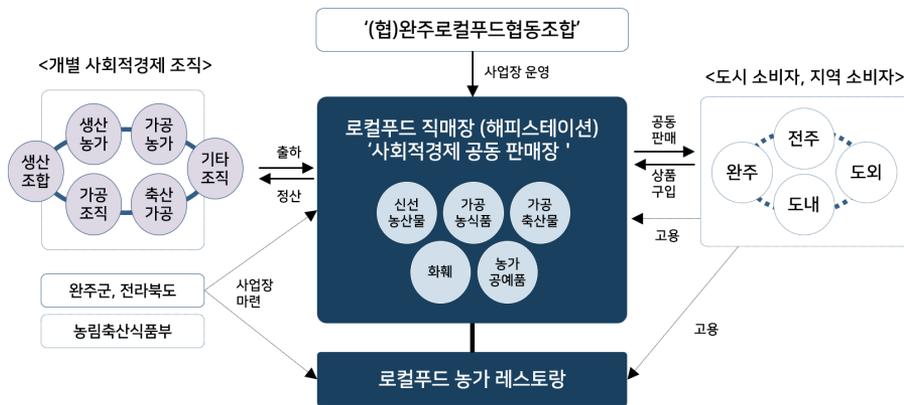
〈그림 3〉 농촌지역 '가공 사업장' 비즈니스 모델

- **(체험마을 사업장 모델) '농촌체험마을'**은 농촌경관 및 자원을 활용해 '체험·숙박'이라는 상품을 매개로 도시 소비자와 교류·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영역임
- '(영)안덕파워빌리지'는 농촌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험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농가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사례임
- 마을 리더의 헌신을 바탕으로 '건강체험, 웰빙식당'은 도시민의 호응을 얻어 매출이 증가했고, 순이익은 조합원 배당과 시설투자로 사업기반을 확장해 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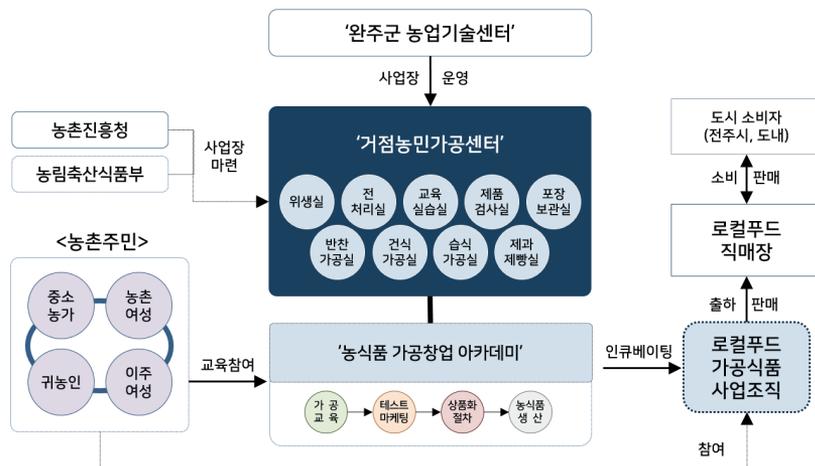
〈그림 4〉 농촌마을 '체험·숙박 사업장' 비즈니스 모델

- **(로컬푸드 직매장 모델)** ‘로컬푸드 직매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작목반)과 가공조직의 상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사업장임
 -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공동 판매장’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판매처로 기능하고 있음
 -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해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생산자-소비자의 교류·체험·정보의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



〈그림 5〉 ‘로컬푸드 직매장’ 비즈니스 모델

- **(거점농민가공센터 모델)** ‘거점농민가공센터’는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큐베이팅’하는 거점시설로 ‘거점농민가공센터 · 소이푸드가공센터’가 대표적임
 - 거점농민가공센터는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사업장(공유자원)’으로 ①가공시설 제공, ②농민가공 촉진, ③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사업조직 육성, ⑤로컬푸드 가공분야 통합관리’ 등을 수행함
 - 거점농민가공센터가 상품화를 지원한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영)농가의 부엌, (협)가공식품협동조합, (협)좁마뜨레, (협)로컬푸드가공먹거리’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림 6〉 ‘거점농민가공센터’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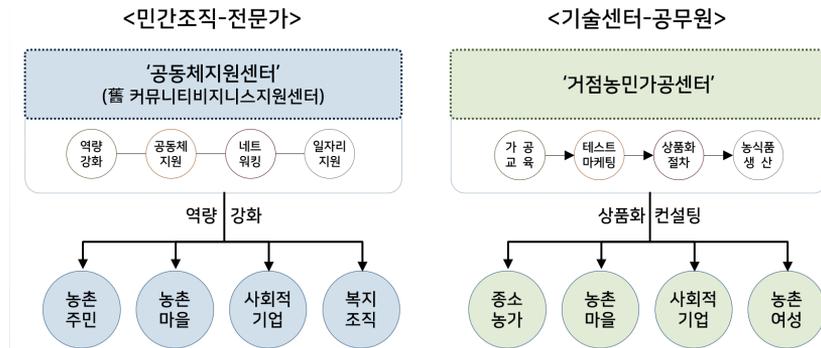
4) 지원조직의 충실한 역할과 지역체계의 구축

- (충실한 행정 지원정책)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요 요인은 지자체가 지원정책(로컬푸드 정책 → 소셜굿즈 플랜)을 진화시켜 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음
 -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추고, 자치법규를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실행의 기반도 갖춰 왔음

〈표 1〉 '행정 지원정책' 의 단계별 진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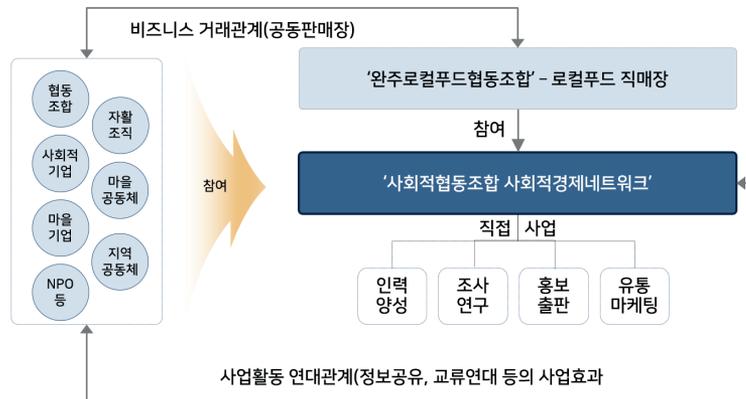
지원정책	전담부서	지원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프로젝트('09) : 로컬푸드 계획 • 소셜굿즈플랜('18) : 사회적경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활력과('10)→로컬푸드 조직 • 사회적경제과('19)→사회적경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성화 조례('09)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판로조례('13) • 사회적경제 육성조례('16)

- (중간지원조직 기능) '관과 민'의 중간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 지자체의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음
 - 중간지원조직은 ①공동체 사업조직의 육성(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로 개칭)과 ②가공사업 조직 육성(거점농민가공센터)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동체지원센터(민간조직)'는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 역할을 담당하며, '거점농민가공센터(행정조직)'는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가공교육, 시제품, 상품화, 상품생산 및 사업조직의 창업 등 인큐베이팅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7〉 '중간지원조직' 의 형태와 기능

- (지역 연대조직 구축) 완주군은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민간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적극 도모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개별 조직의 사업과 활동 한계를 보완하는 '비즈니스 거래망'을 구축하고, '교류·협력·연대'를 통해 활동역량을 보충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음



〈그림 8〉 '지역 연대조직' 의 형태와 기능

5.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에의 시사점

- 첫째, 농촌지역은 생활과 삶의 질 영역에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필요 충족의 측면에서 도시에 비해 어려움을 겪어 농촌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역 활성화의 구심체로 위치를 짓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농촌지역은 복지재정의 부족과 정책인식의 부재로 정책(정부)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결하는 구심체(사업장과 연대조직)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동조합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둘째, 농촌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방식의 비즈니스를 조직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촌의 구조적 문제(고령화, 과소화, 양극화 등)를 극복하기 위한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수단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
 - 로컬푸드 방식의 농촌지역 공동체 사업과 활동은 '소셜굿즈 플랜'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셋째,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미시적 수준에서 조직의 설립·운영, ② 비즈니스 거점이 되는 사업장, ③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적-지역적 수준' 요인을 갖추어 나가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문제진단→조직설립→조직운영→사업운영→성과공유' 단계로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해야 함
 - 개별조직·연대조직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사업장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식당, 가공, 체험'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사업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충실한 지원기능이 중요하며 개별 조직이 참여한 '연대조직'을 통해 '따로-같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정책Brief
2019. 10. 27 vol.35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jthink.kr